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로 예배와 삶을 단단히 준비합니다. 10월은 계절이 바뀌고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대표기도를 맡은 자리에서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회중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겸손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해봅시다. 아래 기도문은 상황별로 바로 읽어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1 나라와 다음세대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욱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주님, 10월의 예배 자리에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말과 생각이 분열을 키우는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소음에 끌려가지 않고 복음의 빛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판이 아니라 회개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다시 숨 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기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사로운 유익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거짓과 과장이 힘을 얻지 못하게 막아 주소서. 갈등과 혐오가 일상이 된 자리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풀어 주셔서, 대화가 끊긴 관계에 다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의 무게로 지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가와 빛, 불안한 고용으로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불의한 구조 속에서 약한 이들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교회가 손을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세대를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과 경쟁, 비교와 낙심 속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기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학교와 학원, 군대와 직장 초년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바른 스승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소서. 주님, 교회가 나라를 향한 중보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의 언어로 서로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가 “내 편”을 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작은 선행과 정직한 삶으로 이웃에게 복음의 향기를 남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게 하소서. 상처 입은 이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외면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10월의 예배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을 다시 살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2 교회와 예배 회복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18:1)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나며 마음이 무뎠던 부분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겉으로는 익숙한 순서가 흘러가도, 속으로는 낙심과 상처가 쌓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풀어 주시고, 숨기고 있던 눈물을 주님의 위로로 씻어 주소서. 예배가 단지 감정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방송, 주차와 새가족, 교사와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 하듯”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새 힘으로 채워 주시고, 작은 빈틈으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덮고 세워 가게 하옵소서. 주님, 10월의 교회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판단과 소문에 익숙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지 못했고, 기도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렸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겸손해지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가족과 오래된 지체가 함께 자라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이 낯설지 않게 하시고, 환대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 다닌 성도들은 익숙함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굴러가게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월요일의 자리에서 다시 무너질 때마다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로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3 직장과 생계 인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주님, 10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터를 주께 올려 드립니다. 실적과 평가, 거래와 회의, 책임의 무게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계가 숫자와 환경에 달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참 공급자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계약이 흔들리고, 매출이 줄고, 팀이 해체되고, 인사 소문이 도는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불안이 믿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조급함으로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일터에서의 관계를 지켜 주옵소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오래 남는 곳이 직장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을 습관처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존중과 배려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며,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우리가 먼저 화평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장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구직 중인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매달 고정비와 월세, 직원들의 월급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친 이들이 있습니다. 문이 막힌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하옵소서. 구직 중인 이들에게는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시고, 준비의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에 의미를 더해 주옵소서.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과가 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성과가 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과 신앙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일의 리듬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10월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 처리하는 문서 한 장에서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이웃이 살고, 우리의 정직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4 가정과 자녀 붙드심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이 오늘 네 마음에 있어야 하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6-7)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각자의 일정과 피로로 집이 쉼의 자리라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숨 고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며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부부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와 자녀 문제, 서로의 기대가 겹치며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혀를 붙드시고,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 함께 살리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과가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칭찬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진로 고민, 친구 관계로 마음이 예민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곧 인생인 것처럼 몰아세우지 않게 하시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듣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교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온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가정예배가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하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습관을 세워 주소서. 부모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을 보여 주게 하시고,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집”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가정을 지키는 성도들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배우자 없이, 혹은 믿음의 동역자 없이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부담이 몰려오는 밤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손길로 위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10월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게 하옵소서. 가족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상처를 덮어 주며,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평강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평강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10월)5 환절기와 이웃 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주님, 10월의 환절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들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기온이 오르내리고 컨디션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까지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며, 돌보는 이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통증과 불안으로 마음이 눌릴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혜로운 의료진을 붙여 주시고, 필요한 검사와 약, 회복의 길을 열어 주소서. 무엇보다 “왜 나에게”라는 질문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건디는 믿음 위에 소망을 더해 주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상실과 후회로 숨이 막힐 때, 말씀 한 줄이 생명처럼 들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따뜻한 연락이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조언보다 먼저 곁을 지키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재난과 사고의 소식 앞에서 두려움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과 일터, 가정이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혹시라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웃의 아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나눔이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가까운 이웃에게로 돌려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족, 연락 끊긴 친구, 오해로 멀어진 지체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소서.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관계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옵소서. 작은 문자 한 통, 짧은 기도 한 줄로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10월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게 하옵소서.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해 주소서.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